

## 흔돈에 빠진 대한민국… 정권교체로 국격 회복

12·3 계엄 1년…변화된 정치 지형

국민 손으로 헌법질서 회복했지만 곳곳 생채기  
77% '양극화 심화됐다'…'내란 아냐' 29% 그쳐  
국힘, 책임 인정·尹과 절연 안 해 긴장감 여전

1년 전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격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 관련기사 2·8·9·19면

계엄령 선포 11일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으며,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정권교체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정

치의 구조를 일순간에 바꿔 놓았다.

국민의 손으로 계엄을 막고 헌법질서를 회복하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대내외적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여전히 계엄을 응호하는 세력이 잔존하고 양극단의 세력들이 충돌하면서 정치시스템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었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0.8%,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은 29%에 그쳤다.

이런 인식은 1년 전 비상계엄 직후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엠브레인리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해 12월 29~30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6명을 전화면접 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p, 응답률 15.3%, 휴대전화 가상번호 인터뷰)에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66%, 아니라는 응답은 28%였다.

정치 양극화는 더 커졌다. 앞서 밝힌 한국갤럽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양극화되었느냐'라는 질문에는 '더 양극화되었다'가 무려

77%에 달했고 '그렇지 않다'가 18%에 그쳤다. '더 양극화됐다'는 응답을 각 정당 지지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79%,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72%, 조국혁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민사회와 광주시의 공동 대응 일지인 '광주, 광장의 시간들'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신당은 87%, 개혁신당은 82%에 달했다.

비상계엄이 가져온 정치지형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보수진영에서 진보진영으로의 정권교체이고, 이에 따라 광주전남의

던 광주전남은 집권여당의 텃밭이자 핵심 기반으로 자리가 변경됐다.

지난 2024년 총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계엄과 탄핵, 그리고 이어진 정권 교

(친이재명)

계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지난 2021년 1월 호남지역 국회의원 중에 최연대에서 활약했던 신정훈 의원, 이재명 초로 대선후보로 지목받은 이재명 경기도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한 이지사 지지를 선언한 민형배 의원, 2022년 대선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온 주철현 의원 등이 눈에 띈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숨은 내란 밝혀내 국민통합 문 열어야”

이 대통령, 비상계엄 1년 소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지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절저한 잔재 청산이 국민통합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돌아보며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빛어 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승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국가해양생태공원에 전남 여자만과 신안·무안군 지정

전국 면적의 88% 차지…해양생태 보전 중심지 입증  
핵심보전·완충·지속기능이용 3단계로 국가 차원 관리

전남 신안·무안과 여자만이 국내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전남지역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전체 면적의 88%

곳이 전남에 위치해 전남 연안의 생태적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단순한 규제 증

화 보호구역을 넘어 해양생태 자원의 보

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특히 전남지역은 해양 생물다양성, 갯벌 생산력,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은 3단계 공간관리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습지보호구역이 1단계 핵심 보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로부터 해상 1km는 2단계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서식지 조성, 해양환경 조사, 해양쓰레기 수거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핵심보전구역에서 육상 방향 500m는 3단계

지속기능이용구역으로 분류돼 관찰 데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 태양·바다·호수를 품은 ‘관광레저, AI산업의 핵심 허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



구성지구  
정원, 재생에너지  
AI스마트도시



삼호지구  
골프산업 중심의  
관광레저



삼포지구  
모터스포츠,  
자율주행 모빌리티

